

대부도 고도제한 기존 40m에서 50m로 상향...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

개발행위허가시 50m까지 임야 행위허가 신청 가능

안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지난 1일 통과시킨 안산시도시계획조례 임야에 대한 고도제한 완화조치가 11일 개최된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됐다.

이로써 대부도에서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고도제한은 기존 40m에서 50m까지도 상향조치됐다.

다만 상임위에서 수정한 대로 본회의에도 통과됐기 때문에 기존 40m 구간까지는 개발행위허가 필요시 아무런 결립돌 없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40m에서 50m구간의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록 하고 있어 '개발은 완화 하 돼 무분별한 개발은 막겠다'는 최소한의 규칙은 지키게 됐다.

그동안 대부도에는 "민주당이 고

도제한에 대한 조례를 반대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힘들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는 해당상임위원 도시환경위원회가 위원장은 민주당인 박은정 의원이었지만 위원구성이 민주당 3인, 국민의힘 3인으로 동수를 유지해오다가 최근 국민의힘, 이 모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으로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면서 빛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얘기는 다르다. 그동안 집행부에서 대부도의 난개발과 무분별한 녹지훼손을 막기 위해 고도제한을 낮춰왔는데 보완장치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해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도는 기반시설이 미비해 무작정 고도제한만 풀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어서 일부 제한은 필요한 지역이다.

이번에 50m 고도제한을 풀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 것도 대부분 해당사항 없어 행위허가를 받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고도에 대해서는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고리를 만들었다고 설명하기 위한 안정장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박해철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도 있었고 대부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재산상 행사를 제대로 못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한 조치다"면서 "그동안 대부도 주민들이 너무 힘들었던 만큼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는 당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4면>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동주민자치회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13농가 완판

직거래장터'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1일 안산시청 주차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대부동에서 가져온 캠벨포도와 와인, 각종 야채 등이 모두 완판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부동에서 모두 13농가가 참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형배 분과장(두번째), 이민근 시장(다섯번째), 김태성 회장(여섯번째), 이진봉 시의원(일곱번째)이다. 한편 대부동주민자치회 농수산물직거래장터는 오는 27일(방아머리), 10월1일(안산시청)에도 계속된다.

대부동주민자치회(회장 김태성) 농업기술분과(분과장 김형배)가 추진하고 있는 대부동주민자치회 '농수산물 직거래장터'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1일 안산시청 주차장에서 열린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는 대부동에서 가져온 캠벨포도와 와인, 각종 야채 등이 모두 완판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부동에서 모두 13농가가 참여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형배 분과장(두번째), 이민근 시장(다섯번째), 김태성 회장(여섯번째), 이진봉 시의원(일곱번째)이다. 한편 대부동주민자치회 농수산물직거래장터는 오는 27일(방아머리), 10월1일(안산시청)에도 계속된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사이동 주민과 소통 현답버스 타고 현장 대화 진행

안산시는 11일 사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의 꿈을 예산에 담다'를 주제로 사이동 주민과의 대화를 열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정 운영 계획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해 2026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들은 ▲빈집 방치로 인한 슬럼화 문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등 생활 밀착형 민원 20여 건을 제안했으며, 이민근 시장은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지시했다.

특히 주요 민원 현장은 주민들과 함께 현답버스를 타고 직접 방문해

선 필요성을 살피며 현장 중심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를 비롯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을 구현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 '현답버스'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현답버스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멈춰 서서 대화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실행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경기도와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위한 업무협약

안산시는 12일 경기도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19일 철도지하화 우선추진사업으로 선정된 '안산선 지하화 사업 통합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시 여건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철도지하화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경기도와 향후 사업 시행에 참여할 안산시가 함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종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6월 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0억 원을 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 7월에 열린 제385회 경기도의회에서 안산시와 함께하는 '안산선 지하

화 사업 통합개발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을 승인받은 바 있다. 시는 제298회 안산시의회(임시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안산시 분담액 10억 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했다. 상정안은 지난 11일 기본계획 추진 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전제로 통과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구성 ▲용역비 분담(50:50) ▲용역 감독 및 검사에 대한 사항 ▲기타행정적 협의사항 등을 담고

이민근 시장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안산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며 "이번 경기도와의 협력을 계기로 지하화 사

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혁신을 빠르게 이

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파크골프클럽 이달안으로 총회

대부파크골프클럽이 이번 달 안으로 현 임원진이 모두 사퇴하고 신규 임원진을 구성한 후 새롭게 태어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지적인 감사의 노력과 고문 및 자문위원단의 참여에 힘 기울인 이 클럽은 수용하면서 대부포도 축제가 마무리되는 21일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곧바로 총회를 열고 이달 안으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한 후 대부

파크골프클럽이 전국 최고의 클럽으로 거듭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부파크골프의 한 원로 회원은 "골프회원이 입을 조끼에서 비롯된 재무회계의 투명성 문제가 이번 기회에 만 천하에 드러나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평가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5,000부 발행

대부도저널은 5,000부를 발행하고,
시내전역에 3,000부를 배포합니다.

대부도와 인연이 깊은 응진군 영흥도와 선재도를 포함한
대부도 전역에도 2,000부를 배포합니다.

대부도저널은 안산시민과 대부도 주민을 위해
보다 빠르고 정직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문의 전화 : 032-880-9994 / 팩스 : 032-880-9961

대표메일 : dj250407@naver.com



안산시, 美 블룸버그재단‘글로벌 시장 챌린지’웹세미나 참여

세계 50개 혁신도시 시장과 ‘신속한 혁신 주도하는 방법’ 주제로 이민군 시장 토론

이민군 시장은 지난 11일(목)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한국시간) 미국 블룸버그재단이 주관한 ‘2025 글로벌 시장(Mayors) 챌린지’ 국제 웹세미나(영상회의)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국제 웹세미나는 시청내 영상실에서 진행했다.

블룸버그 자선재단과 하버드대 블룸버그 도시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웹세미나는 전 세계 1차 수상도시 50곳의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혁신을 주도하는 방법’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주요 논의 내용은 시장 리더십의 핵심 역량 강화에 집중됐다. ▲팀을 지원해 빠른 프로토타이핑으로 아이디어를 신속히 실행·검증하는 방법 ▲리더십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전략 등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이는 지난 6월 19일 열린 1차 웹세미나 ‘혁신 촉진을 위한 시장의 역할’에서 한 단계 발전한 논의로, 실제 혁신을 실행하고 주도하는 리더십 방법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민군 시장은 “혁신적인 정책을 신속히 실행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곧



이민군 시장이 11일 밤(한국시간) 열린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 국제 웹세미나 영상회의에서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도시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이번 글로벌 챌린지를 통해 얻은 리더십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도시 혁신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6월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 1차 수상도시로 선정, 실행 자금 5만 달러(USD)를 지원 받은 바 있다. 이에 기반해 한양대학

교 ERICA 글로벌다문화연구원과 함께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중심으로 내·외국인 청년의 실질적 참여와 다양성 확대를 위한 도시혁신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양대학교 ERICA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은 다문화·이주민 관련 연구와 국제협력 과제를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호문화도시 안산에서 문화 간 소통·이해·공존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안산시는 산업단지와 청년, 다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서,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3분기 회의 개최… 줍깅 캠페인 병행

회의 후 원곡동 일대 줍깅

안산시는 10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커뮤니티센터에서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3분기 정기회의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 외국인주민 모니터단은 이중 언어가 가능한 외국인 주민으로 구성돼 거주 외국인들의 여론 및 불편 사항을 수렴·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11개국 3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외국인 주민 대상 정보 제공 (복지, 교육, 의료 등) ▲4분기 시정 홍보사항 안내 ▲모니

터단 운영관련 건의사항 접수 ▲

외국인들을 위한 분리수거 안내영상 시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회의 후에는 모니터단 위원들이 환경정화활동의 일환으로 원곡동 일대를 돌며 줍깅(Plogging) 활동을 펼쳤다.

이역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본부장은 “모니터단 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정화 활동까지 펼쳐주어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시는 10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커뮤니티센터에서 외국인주민 모니터단 3분기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광복 80주년 무궁화로 물든 안산… 축제 1,500여 명 시민 찾아



이민군 시장(가운데)이 6일 ‘제16회 안산 나라꽃 무궁화 축제’에서 무궁화 나무 물주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6일 호수공원 무궁화동산 일원에서 성황리 개최

안산시는 6일 호수공원 무궁화동산 일원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제16회 안산 나라꽃 무궁화 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광복 80주년, 무궁화 꿈을 피우다’를 주제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나라꽃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축제 현장에는 1,5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기며 무궁화의 가치를 함께 나눴다.

이날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식전 공연(안산시립국악단, 태권도시범단) ▲무궁화나무 물주기 퍼포먼스 ▲무궁화 기념식수 등이 진행됐다. 이어 ▲300여 품종으로 조성된 무궁화동산 관람 스탬프 투어 ▲무궁화 그림·사진 전시 ▲무궁화 패션쇼 ▲무궁

화퀴즈 골든벨 ▲무궁화 키링 만들기 ▲무궁화 목공예 체험 등 다양한 참여 이벤트도 구성돼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한편, 이날 부속 행사로 ‘무궁화 그림그리기 대회’가 개최됐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가해 나라꽃 무궁화를 창의적·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출된 그림은 심사를 거쳐 수상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무궁화를 주제로 한 전시,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나라꽃 무궁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이민군 시장은 “이번 축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시민 모두가 무궁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무궁화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랑받고 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GS반월열병합발전과 친환경 전환·지역경제 활성화 논의

현장간부회의도 함께 개최

안산시는 5일 ㈜GS반월열병합발전에서 현장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기업의 친환경 발전 전환 추진에 따른 행정 지원 사항 검토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8일 밝혔다.

(주)GS반월열병합발전은 1985년 안산스마트허브(옛 반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 증기와 전력을 생산해 온 복합 에너지 기업이다. 1990년 준공 이후 35년간 가동해 온 노후 석탄 발전설비를 철거하고 현재 친환경 연료인 LNG(액화천연가스) 사용 최신 설

비를 신축하는 연료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수소 사용이 가능한 터빈을 설치해 에너지 전환 구조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는 이번 연료전환 사업이 대기환경 개선은 물론, 대규모 건설 투자 등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 절차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이 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경제의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 수소 인프라 조성 ▲지역 건설업체 및 일자리 연계

▲각종 사회공헌 사업 추진 등 다방면에 걸쳐 상생 방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민군 시장은 “이번 LNG 전환은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변화로 읽힌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친환경 발전 전환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상생협력이 곧 지역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 20년 성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

개원 20주년 맞아 준비

안산시는 10일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원장 이성혁)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원내 다목적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르신 돌봄의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안산시립노인전문요양원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기념식에는 이민군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지역사회 복지기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번 기념식에서는 오랜 기간 헌신하며 어르신들과 함께해온 직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와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이 하나되는 행복마을 공동체 선언이 진행됐다.

이성혁 원장은 “개원 이후 지금까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를 위해 힘 없이 달려왔다”며 “안산시와 지역사회, 그리고 봉사자들의 협력 덕분에”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와 함께 지역과 성장하며,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민군 시장은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시는 앞으로도 돌봄서비스 확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강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통해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김현 국회의원 “MBK 홈플러스 안산지역 전면 폐점 철회해야”

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안산을))이 자구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 계획에 대해 희생법원이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안산시의 경우 홈플러스 점포 3곳이 문을 닫게 된 상황에서 노동자와 임점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김현 국회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순차적 대규모 점포 폐점이라는 손쉬운 방식으로 사실상 청산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현 의원은 “희생절차의 핵심인 회사의 존속과 채무자의 재건이 아닌, 사실상 청산절차 전환을 목적으로 한 무리한 구조조정은 지역상권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희생법(61조)에 따르면 점포 폐점과 같은 중대한 영업행위는 희생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법원이 이를 허가했다면 청산적 절차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고, 만약 허가 없이 발표된 것이라면 법원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자구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 계획에 대해 희생법원이 즉각적으로 조치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고 지적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3일 ‘임대인과 협상이 결렬됐다’며 전국 15개 점포를 연내 폐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계획에는 안산 고잔점도 12월 즈음 문을 닫는 점포로 포함돼 있다.

지난 2021년 11월 안산점과 지난 1일 선부점에 이어 안산지역에서 마지막 남은 고잔점까지 폐점하겠다는 것이다. 안산점의 경우 시외버스터미널, 대단지 아파트 등과 가까워 매출

액도 상위권이었으나 2020년 7월 아파트 시행사에 팔아‘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안산점 매각액은 1999년 매입할 당시 240억 원의 10배가 훌쩍 넘는 30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현 국회의원은 “홈플러스가 모두 폐점하면 안산의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MBK는 안산지역 매장 전면 철수 방침을 철회해야 하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계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국회의원은 “대형 유통기업의 철수는 안산시민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적 사안”이라며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권익이 모든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박해철 의원, 제2의 전태일 열사가 없도록 한자로 작성된 「노조법」 모든 조문 한글화



박해철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병, 사진)은 8일, 한

자로 작성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53년 제정되었다.

그러나, 제정된 이래 수십 년간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일상 언

어생활과 거리가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조법」은 한자 표기를 한글 표기로 개정하여 법률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표현하여 배움이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국민이 현행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책은 어려운 한문으로만 다 쓰여져있나, 나에게 근로기준법을 쉽게 알려줄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노조법은 노동자 권익증진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근간이다. 한자로 작성된 노조법을 읽으며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제2의 전태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이은미 도의원, 수암119안전센터 내년 2월 준공 이후 개청 앞두고

차질 없는 개청준비 당부



이은미 도의원

이은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2026년 2월 준공 예정인 안산시 수암119안전

센터에 대해 개청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은미 의원은 10일(수) 제38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수암119안전센터 준공 후 개청과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조해 말했다.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에 위치한 수암119안전센터는 당초 2023년 준공될 것으로 예정됐지만, 연이은 사업기간의 변경으로 2026년 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수암119안전센터가 완공되면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양상동 일대를 관할하며, 안산시민의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날 소방재난본부장에 그 동안 지연 사유였던 문제가 모두 해소됐는지와 2026년 2월 준공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민락119안전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건물은 완공했는데, 필수 인력 배치 등의 문제로 개청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청 및 운영에 있어 소방재난본부의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에 소년재난본부장은 “통상 119안전센터 완공 후 개청까지 2~3개월 소요된다”며, “최대한 준공과 개청 시기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암119안전센터 준공이 늦어진 만큼, 주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내년 초 반드시 준공을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개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민의 소방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철진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핵심 수출 지원사업 위축” 강력 질타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이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핵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가 문제로 지원의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내수 기업이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 사업 역시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의 상담 건수와 계약 추진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우려하며, 두 사업 모두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술력과 제품 성능이

우수함에도 수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두 사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수출 길을 터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어려운 예산 상황을 이해하지만, 기업 지원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하며, “도 집행부는 예산 장벽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예산 증액 통해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발판 마련해야”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1일 제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핵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의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들의 실적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멘토 인원은 2023년 30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지원 기업 역시 125개 사에서 110개 사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멘토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49건 의결 회기 마무리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의결을 끝으로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개회 이후 심사해 온 안건들과 3차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해 총 49건을 처리했다.

처리된 안건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

산안’, ‘기후위기시대 노동자 작업중지권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무관할 차량등록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등이 포함됐다.

의원발의 조례안 중 기획행정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재국)은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과 ‘안산시 지역건설

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각각 수정안 가결됐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가 심사한 ‘안산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은 원안 가결, ‘안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은 수정안 가결, ‘안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진분)은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김진숙)과 ‘안산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유재수)은 각각 원안 가결됐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경우는 시 제출액에서 0.02% 감액된 2조 6,415억 5,934만 1천원으로 확정됐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저널 트레킹 투어’ 첫 번째 철원 ‘소이산’ 트레킹 마무리

10일 노동당사 주변도 관광 은하수·햇불전망대 둘러 고석정 꽃밭도 간접 구경

대부도저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널 트레킹 투어’ 첫 번째 편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소재 ‘소이산’을 다녀오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10일 트레킹 회원은 대부도저널 주장을 출발해 소이산에 도착한 다음 주변에 있는 노동당사와 철원역사문화공원을 관람했다.

이어서 모노레일을 탑승하고 소이산에 오른 뒤 드넓게 펼쳐진 철원평야를 바라보며 크게 환호성을 질렀고 해설사로부터 철원평야의 역사와 주변 상황 등을 들으며 가을하늘아래 펼쳐진 누런 황금들파를 만끽했다. 옛 철원역사, 백마고지, 백마고지 위령비와 기념관, 피의능선, 아이스크림고지 등을 설명 듣고 ‘목숨은 사라져 가도 조국은 지키겠다’는 우리 국군용사의 한없이 고마운 조국애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오후에는 철원한탄강 은하수교와 햇불전망대를 관람하고 철원고석정

꽃밭은 버스 안에서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한 뒤 이날 트레킹의 아쉬움을 달랬다.

회원들은 다음달 트레킹이 기대된 다면서 한 마디씩 단체톡방에 글을 남겼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트레킹을 했습니다.”

“트레킹 덕분에 즐거운 하루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함으로 추억 하나 붙잡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대부도저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또 멋진 분들과 동행해서인지 썩 환한 하늘이었습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대부저널 9월 트레킹 투어에 참가하여 영광이고요. 덕분에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9월25일은 대부산악회 산행일입니다. 대부저널트레킹 회원께서도 산행에 참석 부탁드립니다.”

한편 ‘저널 트레킹 투어’ 10월 두 번째 트레킹은 오는 10월22일(수) 속리산단풍길을 걷는 코스로 정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관련기사 10면〉

김태창 기자



철원 소이산 자락에 위치한 노동당사 앞에서 해설사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 ‘저널 트레킹 투어’가족들의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단신

안산 대부포도 축제

2025 안산 대부포도 축제가 오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애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린다.

대부포도 축제와 함께 대부해솔길 걷기 축제(20일)와 안산마라톤 대회(21일)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축제는 안산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부도포도축제위원회가 주관하며 후원은 NH농협안산시지부, 군자농협, 반월농협, 안산농협이 하고 있다.

회갑 넘어 3개 초등 체육대회

오는 11월 1일 대부도 지역 3개 초등학교를 졸업한 어르신들이 대남초등학교에서 체육대회를 갖는다. 대부초, 대남초, 대동초를 졸업한 학생들 중 올해 회갑이 지난 어르신들이 11월1일 오전 10시에 모여 체육대회를 갖는 것으로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는 뜻깊은 하루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동협의회 현수막 설치

최근 민주당이 주도해서 안산시의회를 통과한 고도제한 완화 조례를 알리는 현수막이 대부도 전역에 일제히 게시됐다.

1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안이 통과되자 일제히 내걸린 현수막은 11일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통과돼 확정됐다.

그동안 고도제한은 40m까지였으나 이번에 최고 50m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윤성용(대부도저널 발행인/대표이사) 정희재의 아들 윤성현 군

박민규강현신의 딸 박재은 양 결혼
일시: 2025. 9. 27(토) 낮12시
가족들과 소규모로 간단하게 겸소한 예식을 진행합니다. 그에 따라 모든 분들을 모실 수 없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힘차게 출발하는 저희 자녀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 바랍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모색 토론회

일시: 2025년 9월 19일(금) 오전 10시~1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공동주최: 이재강 국회의원, 이성권 국회의원,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연대, 추가 제안 중 (행안위 국회의원 + 안산지역 국회의원)

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면서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 문제를 엄중히 따지고 바로 잡을 것이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김태창 기자

안산시, 대부포도축제 19일 개막 사흘간 다채로운 즐길 거리 선사

21일까지 사흘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일원에서 개최 30주년 맞아 기존보다 하루 늘려 3일간 진행



안산시 이범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9일 정책브리핑을 갖고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일원에서 ‘2025년 안산 대부포도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일원에서 ‘2025년 안산 대부포도축제’를 개최한다고 9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개최 30주년을 맞는 이번 축제는 기간을 기존보다 하루 늘려 3일 동안 진행된다. 대부도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연계해 대부 포도의 맛과 멋을 담아낸 종합 축제로 기획됐다.

보랏빛 포도 속으로... ‘풍성한 축제’

이번 축제 기간에는 ▲대부해솔길 걷기(9월 20일) ▲안산 마라톤 대회(9월 21일) ▲방아머리 해변 선선 콘서트(9월 20일) ▲대부동 주민과 함

께하는 ‘대부愛 한마음 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포도 밭기 체험 ▲공연과 체험을 결합한 오감만족 프로그램 ▲관내 대학과 연계한 대부포도 디지털 시식 ▲어린이·가족 참여형 이벤트 등 풍부한 콘텐츠를 마련해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에는 지역 농·특산물 및 대부포도 판매장이 운영돼 신선한 농산물을 직접 맛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달콤한 ‘대부포도’에 풍덩! 서해의 큰 언덕 ‘대부’에 풍덩!

오는 19일 16시 개막식 공연을 시작으로 3일 동안 ▲동춘서커스 ▲음악

회 ▲대부동 주민자치 공연 ▲마술쇼와 마지막 날 폐막식 공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다.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나무 놀이터 ▲승마체험장 ▲포도 터널 포토존 ▲홍보관 부스 등이 준비되어 있다. 지난해 가족 단위 관람객으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포도 밭기 댄스타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포도밭기 댄스타임’은 오는 20일, 21일 이틀간 오전 11시, 14시에 진행된다.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 접수된 70명의 참가자들은 안전교육을 마치고 참여할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올해로 30주년을 맞는 대부포도축제는 품질 좋은 대부포도를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라며 “가을의 문턱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대부도의 매력을 만끽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행사 기간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안전체계수립,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인근 비상 네트워크 협조 체계 구축 등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천 시를 대비하고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객석 루프트러스, 포도판매관 그늘막을 각각 설치해 관람객과 구매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서와 협력해 행사를 운영하고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푯버스 6대를 운영한다. 푯타 어플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 및 결제카드 등록을 하면 경기도 시내버스 운임으로 대부도 내에서 원하는 승차지와 목적지를 정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윤성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의회 최진호 대표의원... 걱정하고 안산시 비판

대부동지역 현수막 철거두고 고도제한 완화 현수막은 철거 4호선 지하와 현수막은 게시 엄중히 따지고 바로잡는다

안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최진호 의원(고잔동, 초지동)이 박태순 의장으로부터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작심하고 안산시를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시의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한 최진호 대표의원은 “어제(9일) 대부도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면서 “대부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고도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었고, 이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대부도에 게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현수막들은 불과 이틀 만에 철거되었다. 업체변호, 연락처, 게시 기간까지 모두 적시했고, 문구는 물론 선거법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까지 받은 현수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단순히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불법이라 단정하고 철거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의원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양해 왔던 불편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안산이라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시민을 대표해 서 있는 이 본회의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안산의 발전과 성장을 우선 생각하겠다는 마음으로 정치적 발언은 자제해 왔다”고 운을 뗀 뒤 “그러나 시장과 시의회 다수당이 소속 정당은 달라도 시민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신뢰를 가지고 부족

한 부분은 덮고 응원하며 함께해 왔다. 이것이 협치이고 이것이 신뢰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신뢰와 협치가 허상이었음을 보여주었다”고 시를 직격했다.

최 대표의원은 “물론이다. 안산시는 언제부터 정치 현수막을 이렇게 신속히 철거해 왔습니까? 정말로 모든 공은, 모든 성과는 시장만 가져 가야 하고 다른 정치 세력의 성과는 지워져야 한다는 생각이 작동한 것입니까? 그렇게 파란색 현수막이 보기 싫으셨습니까?”라고 시장과 시를 질타했다.

최 대표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현수막은 불법이라며 서둘러 철거하면서도 시청 앞과 주요 거리에 걸려 있는 특정 정당을 공격하고 특정 세력을 비난하는 현수막은 왜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얼마전 유관단체들을 총 동원하여 4호선 지하와 지하 현수막으로 시내 곳곳이 도배될 때는 왜 문제삼지 않으셨습니까?”라면서 “바로 시청 앞 1km 반경 내에 수십 개의 현수막이 한 달 가까이 도배되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이 중립성을 잃고 정치적 잣대로 이중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이번 철거는 단순한 행정이 아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막고 정당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으며 특정 세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명백한 공무원의 정치행위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의원은 이어서 “저는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안산시는 이번 조치의 근거를 시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이중잣대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치로 책임 있는 자

“안산 고교 선택 전략 가이드: 학점에서 진학까지”

2025 고교학점제 학부모와 학생 대상 설명회 개최

안산교육지원청은 9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상록중학교 시청각실에서 『2025 고교학점제 학부모(학생)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학부모와 학생의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미래학점플러스’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자리로, ‘안산 고교 선택 전략 가이드: 학점에서 진학까지’를 주제로 운영됐다. 자녀의 고등학교 선택과 변화된 대입제도에 대비한 과목 선택 전략 등을 중심으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진로와 학점을 한눈에” 안산 고교 선택, 전략적 준비 방법

행사에는 관내 중학교 학부모와 학생 등 1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현장에서 학생 진로지도와 교육과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생활 ▲일반고 유형별 교육과정 편제 ▲대입 변화에 따른 진로 설계 전략 등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설계 지원

특히 안산 지역 일반고에서 운영 중



안산교육지원청은 9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상록중학교 시청각실에서 ‘2025 고교학점제 학부모(학생)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인 소인수강좌, 공동교육과정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생 선택권 확대를 위한 현장 중심 실천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설명회에 참석한 학부모에게는 『안산 고등학교 교육과정 책자』가 제공됐다. 참석한 한 학부모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안산의 다양한 고등학교 유형과 각각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도 새롭게 알게 되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자녀의 진로와 고등학교 선택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교육의 시작점은 바로 가정입니다”

김수진 교육장은 “고교학점제는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변화하는 대입 제도와 다양한 교육과정 속에서 학부모님이 자녀의 진로와 학업을 함께 고민하고 안내자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명회가 고등학교 선택과 과목 설계, 나아가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며, 안산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와 가정

이후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학부모 대상 연수 운영에 반영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안내와 협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미래진로직업교육박람회’성황리 진로 설계 디딤돌



안산대학교는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사업의 일환으로, 8월과 9월에 걸쳐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로 학생들이 출국했다. 이번 파견은 학생들의 전공 역량 강화와 글로벌 현장 경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김태창 기자

6일 상록수체육관에서

안산시는 6일 상록수체육관에서 ‘2025 안산 미래진로직업교육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산 미래진로직업교육박람회는 안산시와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하고 (재)안산시청 소년재단 안산시진로체험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박람회는 관내 14세부터 19세 청소년 2,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다양한 진로·직업 관련 체험과 탐색이 가능한 공간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진로탐색 프로그램 ▲학교체험 부스 ▲직업체험 활동 ▲전문가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청소년들은 체험을 통해 미래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웠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부스를 마련, 청소년들이 새로운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이번 박람회를 통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진로 역량을 기르고, 스스로 꿈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의 청소년들은 우리 도시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경험하고 내일 있게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안산대학교 2025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학생 출국



안산대학교는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사업의 일환으로, 8월과 9월에 걸쳐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로 학생들이 출국했다. 이번 파견은 학생들의 전공 역량 강화와 글로벌 현장 경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8월과 9월에 걸쳐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로 출발

안산대학교는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 사업의 일환으로, 8월과 9월에 걸쳐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지로 학생들이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학생들의 전공 역량 강화와 글로벌 현장 경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월 20일 미국 Marywood University에 3명, 8월 26일 미국 Western Iowa Tech College(WIT)에 2명이 출국했으며, 이어 9월 1일 일본 교토 YMCA에 2명, 9월 5일 말레

이시아 SEGI University에 14명이 각각 출국했다. 안산대학교는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해외에서 어학 및 직무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해외 파견을 통해 학생들은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은 물론, 글로벌 소통 능력과 문화 적응력을 함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대학교 윤동열 총장은 “전문대학 글로벌현장학습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글로벌 무대에서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안산대학교 국제교류문화원 정승조 원장은 “학생들이 이번 글로벌현장학습을 통해 새로운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신감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도전과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며, 안산대학교는 다년간의 글로벌 인재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연수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한글날 맞이 ‘2025 경기도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 사진 공모전’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원장 김태경)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2025 경기도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 사진 공모전’을 실시한다.

2015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민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바로 알고 우리말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생, 일반인, 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경기도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말로 된 가게, 건물, 기관 등의 간판 사진을 직접 찍어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이전 수상작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전 수상작에는 ‘가시버시, 겐, 꺾 1984, 굴비 한 두툼, 꽃뿔에 꽃들이, 눈썹, 놀담, 달그락, 두뿔나래 어린이 도서관, 뚝배기, 포바기, 몽구리, 불뿔하늘정원, 바람부리 명태찜과 김밥, 소란, 소복소복, 어울더울, 예그리나, 책드락, 키옥괴, 고스락 손수제비, 수원에는 뿔이 있다, 아지랑이’ 등이 있다.

신청자는 10월 10일(금)까지 공모전 지원서와 사진 파일을 전자우편으

배구 여제 김연경 고향 안산서 전국 중학교 최강전 열린다

안산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상록수체육관과 올림픽체육관에서 ‘2025 KYK파운데이션 전국 중학교 배구 최강전 안산대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안산시체육회와 KYK파운데이션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국에서 선발된 남녀 중학교 16개 팀(남자 8팀, 여자 8팀) 선수와 임원 등 3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안산시에서는 본오중학교(남), 원곡중학교(여)가 출전해 고향의 명예를 걸고 경쟁에 나선다.

특히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배구의 전설이자 KYK파운데이션 이사장인 김연경의 고향 안산에서 열

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연경 이사장은 배구 꿈나무들을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유소년 배구 지원사업을 펼쳐왔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중학생 선수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은 세계적인 배구 스타 김연경 이사장을 배출한 도시로서, 이번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배구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전국의 젊은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크게 성장하고, 안산 시민들께도 배구의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서는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간판을 제보한 사람에게는 상금(30만원)을 전달하고, 선정된 곳에는 ‘경기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및 기관 이름’ 현판과 문화상품권(10만 원)을 수여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자우편: hykorean@hanyang.ac.kr, 전화: 031-400-4513)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반월동, 추석맞이 환경정비 활동 펼쳐



상록구 반월동 통장협의회는 추석 을 맞아 지난 10일 깨끗하고 쾌적한 반월동을 만들고자 환경정비 활동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반월동 통장협의회 회원 40여 명은 반월동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쾌적 한 환경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를 진행했다.

박중열 반월동 통장협의회장은 “반 월동을 쾌적한 환경을 갖춘 다 함께 살기 좋은 마을로 나아갈 수 있게 되 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반월 동 행정복지센터와 통장협의회가 협

력에 깨끗하고 살기 좋은 반월동 만 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대섭 반월동장은 “더운 날씨에 고 생하신 반월동 통장협의회에 진심으 로 감사드린다”며 “오는 25일에도 주 민들과 상록구청, 반월파출소, 119안 전센터 등 민관이 함께 환경정비는 물론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어린이 안전 등교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 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반월동 만들기에 앞 장서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선부1동 새마을회,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활동



안산시 단원구 선부1동 새마을회는 지난 9일 선부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반찬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 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새마을부녀회와 새 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15여 명이 참여해 밑반찬을 손수 조리하고, 홀 로 거주하는 어르신과 저소득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60여 가구에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살폈다.

김준임 새마을부녀회장은 “회원들 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반찬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라

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대우 새마을지도자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 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은혜 선부1동장은 “회원들의 따 뜻한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 회가 함께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연세우유 반월시화대리점, 선부2동에 우유 기탁



단원구 선부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0일 연세우유 반월시화대 리점에서 우유(1L) 212개를 기탁했 다고 11일 밝혔다.

연세우유 반월시화대리점은 지역사 회에 관심을 두고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며 꾸준히 나눔 실천에 앞장서 는 기업이다.

임왕규 연세우유 반월시화대리점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 웃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 로도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병석 지사협 위원장은 “따뜻한 마 음을 전해주시는 연세우유 반월시화대 리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 간자원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선부2동장은 “이웃을 위한 관심과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했다.

또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민간자 원이 복지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협 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일동‘백세건강마을’놀이하는 경로당



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르신들의 큰 호응 속에 “‘일동 백세건강마을’ 놀이하는 경로당” 보드게임 교육 프 로그램을 지난 8일 일동경로당 수업 을 마지막으로 종료했다고 10일 밝혔 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그동안 열정적 으로 참여하신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금메달을 걸어드리는 이벤트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신현민 안골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에 늘 비슷한 활동만 있어서 아쉬웠

는데, 이번 보드게임 프로그램을 통 해 웃고 즐기며 서로 교류할 수 있어 경로당이 훨씬 활기차졌다”며 “앞으 로도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혜숙 일동장은 “이번 보드게임 프 로그램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생 활과 사회적 교류 증진에 큰 도움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 의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를 위해 행 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 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초지동, 가을꽃으로 물들다... 주민들에게 선사”



단원구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는 지 난 10일 청사 앞 화단에 가을꽃을 심 어 주민들에게 계절의 아름다움을 전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심은 페튜니아, 멜란포디움 등 500여 본의 꽃들이 노란빛과 붉은빛 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가을 정취를 자 아내고 있다. 초지동 행정복지센터 직 원들이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리며 꾸민 화단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 게 밝고 활기찬 분위기를 선사했다.

황병노 초지동장은 “직원들과 함께 가을꽃을 심으며 주민들에게 작은 휴

식과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 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꽃 을 심어 주민들이 아름다운 꽃길에서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지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번 꽃 식재를 비롯해 계절별 화단 가구 기, 환경정화 활동 등을 꾸준히 추진 하며 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 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또 겨울 이번 내집앞 눈치우기도 열심히 하는 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해양동 새마을부녀회, 구수한 한국의 ‘장’ 나눔



상록구 해양동 새마을부녀회는 지 난 10일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사업’ 의 일환으로 직접 담근 된장을 관내 홀몸 어르신, 취약계층 36가구에 전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은 상록수 된장마 을에서 직접 된장을 담가 지역 내 취 약계층 및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가 가호호 방문해 곧 다가올 추석을 맞 아 따뜻한 위로와 지원의 손길을 전 했다.

이은채 새마을부녀회장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근 된장으로 어

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즐 기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 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찾아가는 새마을부녀 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윤기 해양동장은 “어르신들을 위 해 정성껏 준비해 주신 해양동 새마 을부녀회원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정 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해양동, 한 층 더 두텁게 복지를 책임지고 걱정 하는 해양동, 살기 좋고 행복한 해양 동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전원주택, 토지, 팬션, 매매 및 분양



YouTube

포도나무부동산TV

032.880.047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12 (구봉도 입구/ 배터지는 집 옆)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속보) 메추리섬 매매

분할매매 가능~

(주)리치개발 · 황금토목

차준환 M: 010.5558.6665

토지매매

(1)대부북동삼거리 인근 성장관리계획구역 주택단지
(2)건축허가 300평(도로56평 포함). 평당 90만원
(3)대부동동(영전마을)대송단지 앞 맹지.답. 350평 평당35만원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군자농협 대부지점

032.886.310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69-13

인천강화옹진
축산농협 대부지점

032.886.0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01

경인서부수협 대부지점

032.886.008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101

대부 우체국

032.886.00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3

최육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육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용담바다낚시터

오준태 M. 010.5285.06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낚시터

행정사사무소

박정택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등대바다낚시터

이한종 M. 010.3738.66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대부도 주민자치회

위원 황진 M. 010-7632-1150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K3 바다낚시터

최병희 M. 010.5230.85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667(대부남동), 202호

서해부동산

박현배 M. 010.8810.3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어지런이길 61-8(대부남동)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씀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선재낚시공원

조부형 M. 010.8813.0515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히든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대부도 방아머리의 명소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01-1

반달섬
분양.임대.매매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백령도 하늬 해변과 진촌마을 국가생태관광지역 재지정

우수한 성적으로 재지정

웅진군은 백령도 하늬해변(점박이 물범 집단서식지)과 진촌마을이 환경부가 주관한 ‘국가생태관광지역 운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재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국가생태관광지역 제도는 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로, 3년마다 운영성과, 주민참여도, 생태자원 관리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백령도는 천연기념물 점박이물범의 최대 서식지로 독특한 지질·경관자원, 다양한 철새 도래지 등 국제적으로 가치 있는 생태·자연자원을 보유하고, 백령도점박이물범생태관광협업체가 주도한 생태교육 프로그램과 탐방 프로그램 운영,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가 우수하게 인정됐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백령 생태관광 체험센터 조성사업은 이번 재지정 성과와 맞물려 백령도의 생태관광 기반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백령 생태



백령도 하늬해변(점박이물범 집단서식지)과 진촌마을이 환경부가 주관한 ‘국가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재지정되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관광체험센터는 2026년 준공 예정으로 탐방객을 위한 생태 해설 및 교육 공간, 전시·체험 시설, 지역 특산물 홍보·판매 공간 등을 갖추어 향후 지역주민 소득 창출과 생태 보전 활동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웅진군은 이번 재지정과 생태관광

체험센터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생태관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 참여형 관광콘텐츠 발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환경 보전의 균형 달성 등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웅진군 관계자는 “이번 국가생태

관광지역 재지정은 백령도의 생태적 가치를 국내외에 다시 한 번 알리는 계기”라며,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관광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인천광역시·웅진군-길병원 민·관협력 승봉도 무료진료

도시지역 의료 공백 해소 위해

웅진군은 도시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가천대길병원과 함께 9월 10일 승봉도 방문,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첫 진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진료에는 인천광역시 ‘1섬-1주치(主治)’ 사업의 협력병원인 가천대길병원 한의과 의료진이 참여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상담을 비롯해 근골격계 통증에 대한 침 치료, 건강상태 점검 등 다양한 진료가 이뤄졌으며, 필요 시 현장에서 직접 약을 처방·지급해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섬에

서 접하기 어려운 전문의의 따뜻한 진료는 주민들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계기가 됐다.

승봉도는 현재 의료기관이 없어 보건진료소를 통해 기본적인 진료만 제공되는 의료취약 지역으로, 이번 진료는 전문의가 직접 방문해 진료와 상담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웅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섬 주민 곁을 지키는 따뜻한 의료 서비스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웅진군은 도시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가천대길병원과 함께 9월 10일 승봉도 방문,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선화 기자

대청면, 민·관 합동 환경정화행사(Clean-Up Day) 실시

모래울 해변 일대에서

웅진군 대청면은 7~8월 피서철 종료에 따라 대표 관광지인 모래울 해변 일대에서 2025년 9월 중 제1차 Clean-Up Day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모래울 해변은 약 1km에 걸친 고운 백사장과 맑은 바다가 어우러진 대청도의 대표 관광 명소로, 여름철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또한 주변에는 울창한 송림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행사는 피서철 동안 많은 관광객이 찾는 해변을 정비하여, 청정한 대청도의 이미지 제고와 쾌적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클린업데이에는 대청면사무소 주관으로 대청면 주민, 공무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해변 일대에 적치된 쓰레기와 방치된 해양 부유물 등을 수거하였다. 특히, 피서객들이 남기고 간 페트병·캔·일회용품 등 생활쓰레기와 파도에 밀려온 로프·스티로폼 등 해양폐기물 약 30톤을 정리했다.

임승운 대청면장은 “모래울 해변은 매년 많은 피서객들이 찾는 대청도의 대표적인 명소인 만큼, 해변 환경깨끗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율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통해 청정 대청도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용 기자

제52회 웅진군민의 날 기념 종합행사 개최

12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웅진군은 오는 12일에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제52회 웅진군민의 날 기념 종합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웅진군민의 날은 1973년 제정된 이래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대표적인 군민축제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9월 20일을 군민의 날로 기념해 왔으나, 어민 조업시기 등 민생을 고려하여 올해는 행사일을 당겨 진행했다.

올해로 52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도시지역의 특수한 여건상 평소 왕래가 어려운 군민 상호간 화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준비해 왔으며, 애항

심 고취와 전 군민이 일치단결해 ‘새로운 웅진, 신나는 웅진’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의 구성은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 체육대회, 문화행사, 홍보체험관 운영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섬과 육지를 아우르는 군민과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

기념식 행사는 식전공연 대청면 동백합창단의 ‘합창무대’와 전통마당놀이 ‘신뽕덕전’을 통해 군민들의 흥과 화합의 분위기를 북돋운다. 이후 진행되는 기념식에서는 각 면 주민들의 입장에 이어 군민헌장 낭독, 기념사 및 축사가 이어지며 군민들

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시상식이 이루어진다. 또한,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도착한 축하영상 메시지가 상영되며, 군민의 노래 제창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체육행사는 군민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 대형 공을 굴리며 협동심을 발휘하는 ‘지구를 굴려라’, 풍선을 높이 쌓아 올리는 ‘비전 풍선탑 쌓기’, 체력과 팀워크를 겨루는 ‘대형 바톤 릴레이’,

응원 열기를 더하는 ‘대형 박 터트리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경복 군수는 “군민이 주인공이 되는 군민의날 행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웅진군민 모두의 마음이 모여 우리군이 희망한 미래, 새롭고 신나는 미래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며, 단 하나의 안전사고 없이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저널 트레킹 투어 회원모집

‘대부도저널’에서 매월 1회씩 전국 유명 트레킹 장소를 투어하기 위한 ‘저널 트레킹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두번째 저널 트레킹

1. 일시 : 2025년 10월 22일(수) 오전 7시 출발 (오전 6시 50분까지 집결)
2. 장소 : 속리산 단풍 (세조길 & 법주사 일대 등)
3. 모집 인원 : 선착순 40명 (여행자 보험위해 주민번호 필요)
4.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5. 참가비 : 1인당 5만원 (식비, 관광버스 왕복, 간식, 물, 여행자보험 포함)
(계좌 : 농협 352-2309-3205-43. 예금주 : 이선화 / 입금 후 연락바람)
6. 집결장소 및 시간 : 대부도저널 주차장 (단원구 상동로 97)

김동연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를 AI가 열어가 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만들겠다”

12일 수원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12일 수원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를 “AI가 열어가 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마스터플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 국회의원, 남경순·박옥분 도의원, AI·반도체·바이오 분야 기업관계자 및 돌봄의료 전문가, 지역주민 등 6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작년 3월에 북수원 테크노밸리 계획을 발표했는데 오늘 마스터플랜을 주민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곳은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다. 영동고속도로부터 전철과 각종 도로가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가 기본으로 깔리고, 그 위에 삶터, 일터, 쉼터가 같이 들어오게 된다. 15분 이내 거리에 주거지, 직장 그리고 여가시설을 갖춘 복합단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통합돌봄 시스템을 도입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최초의 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설명회에서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 개발구상을 구체화한 마스터플랜과 돌봄의료원스톱센터 설치 기본구상이 발표됐



12일 수원에서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수원 테크노밸리를 “AI가 열어가 는 자족형 15분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다. 북수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며, 2026년 5월 착공해 2029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 면적은 14만1천㎡로 사업비 규모는 2조 8천억 원이다.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예정 부지에는 현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경기연구원, 기록관 등이 입주해 있다. 도는 이 중 7% 정도는 존치해 경기도인재개발원 기능을 유지하되 나머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현물로 출자해 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곳을 일자리, 주거, 여가를 한 곳에서 해결하는 ‘경기 기회타

운’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북수원 테크노밸리가 표방하는 ‘AI가 열어가 는 자족형 15분 도시’란 15분 안에 집에서 일자리, 여가시설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도시 모델을 말한다.

이를 위해 AI에 기반을 둔 IT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등 미래 산업을 유치해 과학·인덕원테크노밸리~북수원테크노밸리~광교테크노밸리~용인테크노밸리~판교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국내 최고의 AI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또 기숙사 500호, 분양주택 1,816호

를 공급하고 연면적 7만㎡ 규모의 상업·문화·스포츠·여가·복지 공간도 제공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문의료, 재활치료, 단기입원, 주야간보호 등의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형 돌봄의료 원스톱 서비스도 도입된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현장설명회에 이어 장안구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첨단산업 미래 리더인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반도체융합공학과 학생 21명을 만나 반도체 분야 학생들의 진로·일자리 고민을 듣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철진 의원 “경기도 핵심 수출 지원사업 위축” 강력 질타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 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사

진)은 11일 제 386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미래과 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과 ‘수출 상담회’ 등 핵심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국제협력국 소관의 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도내 수출 초보 기업을 지원하는 주요 사업들의 실적이 위축되고 있는 현상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무역 전문가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의 경우, 은퇴한 무역 전문가를 멘토로 활용해 수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멘토 인원은 2023년 30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지원 기업 역시 125개 사에서 110개 사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문가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멘토 인원을 줄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

운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가 문제로 지원의 폭을 줄일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더 많은 내수 기업이 수출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바이어와 도내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수출 상담회’ 사업 역시 실적이 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의 상담 건수와 계약 추진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 추세에 있는 점을 우려하며, 두 사업 모두 경기도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술력과 제품 성능이 우수함에도 수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내수 기업을 수출 기업으로 만드는 것이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두 사업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수출 길을 터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어려운 예산 상황을 이해하지만, 기업 지원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하며, “도 집행부는 예산 장벽 뒤에 숨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진경 의장,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경기도 국비 지원사격 요청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이 10일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경기도 재정의 어려움 속 민생 안정을 위한 당과 국회의 국비 지원사격을 요청했다.

이날 경기도청 울곡홀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정에 정책위의장,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예결위 간사,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했다.

예산정책협의회는 경기도 핵심 현안 및 정책사업들에 대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 주요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대한민국 심장이지만 경기침체와 세

수 감소로 도민 삶을 지탱해야 할 공간은 빠르게 비어가고 있다”며 “민생 예산만큼은 지키고자 힘쓰고 있으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현안과 사업은 경기도만의 과제가 아닌, 대한민국

국 미래 투자와 같다. 당과 국가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새 성장의 길을 여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회법’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방회법의 책임을 바로 세울 지방회법 제정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며 “지방자치가 살아야 국가도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저널 피싱클럽 회원모집

대부도에서 낚시를 떠나고 싶은데 선뜻 혼자 떠나기 망설여지시나요?

대부도저널 피싱클럽에서는 안산 대부도를 거점으로 전국을 무대로 생활낚시의 모든 장르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널 피싱클럽과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 저널 피싱클럽 소개

1. 활동내용 : 정기 출조, 낚시기술 공유, 친목도모
2. 낚시대상어종 : 우럭, 농어, 대광어, 갑오징어, 쭈꾸미, 문어, 백조기, 심해 갈치
3. 정기모임 일정 : 매월1회 정기 출조 (유어선 독배운영)
4. 대상 : 낚시를 좋아하는 모든 남,여 / 초보자 대환영 / 대부도 거점으로 서울, 경기권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 가능
5.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동호회 혜택 : 초보자를 위한 낚시 장비 사용법 및 기초교육, 숙련된 회원들과 경험 및 노하우 전수

정기 출조 이벤트 및 선비 할인





대부도저널 후원 ‘저널 트레킹 투어’ 첫 번째 트레킹...철원 소이산

‘저널 트레킹 투어’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트레킹 장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에 위치한 소이산이다.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정상에서 바라보는 철원평야의 황금들판 풍광을 즐기기 위해서였다. 가장 먼저 주

변에 있는 노동당사를 방문했고, 해설사로부터 연혁과 역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소이산

은 모노레일을 탑승하고 정상에 올랐으며 내려올 때 역시 모노레일을 이용했다. 소이산 정상에서는 해설사로부터 철원평야의 자세한 역사를 들을 수 있었으며 백마고지, 화살머리고

지, 백마고지 위령비와 기념관, 옛 철원역사, 아이스크림고지, 피의능선과 김일성고지, DMZ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 등의 위치와 그들마다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는

철원한탄강 은하수교와 햇불전망대를 관람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고석정 꽃밭은 차량 안에서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22회]

‘섬마을 선생님’ 노래 부른 이미지 선생님을 만나다



晴境(청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부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20년전 2005년 9월 학생이 2,200여 명에 58학급이 넘는 정왕초등학교 교장으로 3년반 근무하다가 자원(自願)해서 벽지학교인 대부도 대남초등학교에 온 것은 ‘섬마을 선생님’ 노래와 숙명적(宿命的)으로 맺어진 인연(因緣)이라 생각된다.

16년 전인 2010년 4월 6일 대부도에서 사라진 해당화를 심고, KBS 김재형 전 PD님으로부터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는 대남초등학교이고, 그 학교 총각 선생님이 주인공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다. 나의 앞에 계신 분이 그 유명한 박춘석 작곡가님과 절친한 분이요, 내가 근무하는 학교가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라니? 믿기지 않았다. 대부도가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라는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이미지 선생님께 알아봤나?”는 것이다. 어떻게 그 유명한 이미지 선생님을 직접 만날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 여겨졌다. 그런데 이미지 선생님을 만나는 행운의 기회는 다가

오고 있었다.

2020년 2월 이균희 지회장과 함께 ‘이미지 선생님 팬클럽회장 나미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후 엘리저 여왕 이미지 팬클럽 카페에 해당화 심기,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이야기, 노래비 건립, 섬마을선생님노래보존회 활동 등을 올려 정보 교환을 하면서 친분(親分)이 두터워졌다. 그 후 인천 ‘2022 이미지 60주년 기념 음악회,’ 일산 ‘이미지 특별감사 콘서트,’ 안산 ‘2023 이미지 60주년 기념 음악회’ 등을 관람하면서 이미지 선생님을 만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22 이미지 60주년 기념 음악회’였다. 2022년 10월 29일 나미주 회장님께서 사전 만남 약속을 한 후, 이 음악회 공연 전 선생님 대기실을 찾았다. 이미지 선생님께서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 건립 소식을 나미주 회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서 감사하다는 말과 아울러 팬클럽 카페지기 회원들과 일산 콘서트에 참석해 달라면서 초대 권도 주셨다.

두 번째 뵈기로 한 것은 일산 한류월드 JTBC 공개홀의 이미지 특별감사 콘서트가 끝난 후였다. 2022년 11월 3일 오후 2시 공연이라 팬클럽 회장님과 12시에 만나 식사 후 공연장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를 조각한 김용현 화가와 함께 갔다. 이미지 선생님 팬클럽 카페지기 회원 5명과 콘서트장에서 만나 함께 차를 마시고 사



2022년 11월 3일 일산 이미지 감사 콘서트장의 엘리저 여왕 카페지기 회원과 함께



2023년 5월 27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이미지 선생님과 면담 모습

진도 찍었다. 공연 후 이미지 선생님 과 만나기로 하였으나 일정 변경으로 만나지 못했다. 이미지 선생님께서 나미주 회장님께 ‘섬마을 선생님’ 노래 관련 사업은 좋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미지 선생님 마을 지정」 후 관리가 지속해서 되지 않은 전례가 있어 우려를 표하고, 초청하면 안산에 오겠다는” 말을 나미주 회장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날 이미지 선생님은 일산 공연의 유일한 앙코르 곡 ‘섬마을 선생님 노래’를 관객과 함께 콘서트장이 떠나가도록 열창해 주셨다.

세 번째 뵈기로 한 것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3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의 ‘2023 이미지 노래 인생 60주년 음악회’ 콘서트가 끝난 후였다. 1960년대 초 ‘섬마을 선생님’ 노래의 실존(實存) 인물인 서강훈 총각 선생님과 이춘자 섬책시를 이미지

선생님이 초청하였으나 병원 진료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공연이 끝난 후 안산시 이대구 전 의원과 문화예술과장, 이균희 지회장, 김선철 전 교장 등 다섯 명이 만나 면담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이미지 선생님께서 ‘서강훈 총각 선생님의 연세와 치료 경과’를 물었다. 김선철 교장이 “80대 중반이고 작년부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미지 선생님께서 “연세도 별로 많지 않으신데~~~”라며 “총각 선생님의 쾌유를 빈다”고 하셨다.

그리고 “섬마을 선생님 노래 관련 사업도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격려해 주셨다. 10여 년간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를 밝히며 쏟은 정성이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로 인정된 것이라 기뻐했다.

데스크 칼럼

대부도 고도제한 완화 기회와 숙제



김태창
편집국장

안산시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부도의 임야 개발행위시 고도제한을 기존 40m에서 50m로 완화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 고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된 만큼 주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십 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낙후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했던 대부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규제 완화가 반드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시의회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40m에서 50m 구간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단서를 달았다. 대부분은 통과되지만 특별한 입지에서는 공공성, 경관,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고도 완화를 무조건 반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일정 부분 반영한 장치로도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규제 완화와 신중한 관리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요구를 절충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인프라다. 대부도는 이미 주말이면 ‘교통지옥’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도로 체증이 심각하다. 규제를 풀어 개발을 늘리면서 도로 신설과 같은 기반시설 확충을 뒷전으로 한다면 주민 불편은 배가

될 것이다. 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함께 가지 않는다면, 고도 제한 완화는 오히려 지역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고도를 높일 자유를 허용한 만큼, 도시 전체의 성장 기반을 함께 닦아야 한다.

정치적 해석도 불가피하다. 이번 조례 개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고도제한 완화를 반대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오히려 지난 1일 상임위 통과 직후 “민주당이 해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대부동 전역에 내걸었다. 시는 이를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9일 철거했으며, 이에 민주당 시의원이 10일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심을 선전하려는 정치적 셈법이 읽히는 대목이다.

대부도의 하늘을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주민 삶의 질이다. 주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더 높은 곳의 건물이나 더 안전한 도로, 더 편리한 생활환경, 더 안정적인 지역 미래다.

고도 제한 완화는 시작일 뿐이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환경·관광·산업 등 종합적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와 시의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진정한 책무다.

규제 완화가 진정한 기회가 될지, 새로운 혼란이 될지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균형 잡힌 정책 집행과 책임 있는 정치가 대부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대부도 주민들도 누가 나를 위해 일해 주는지, 누가 대부도를 위해 일해 주는지 잘 파악하고 판단하는 눈썰미를 길러야 할 때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중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kr78@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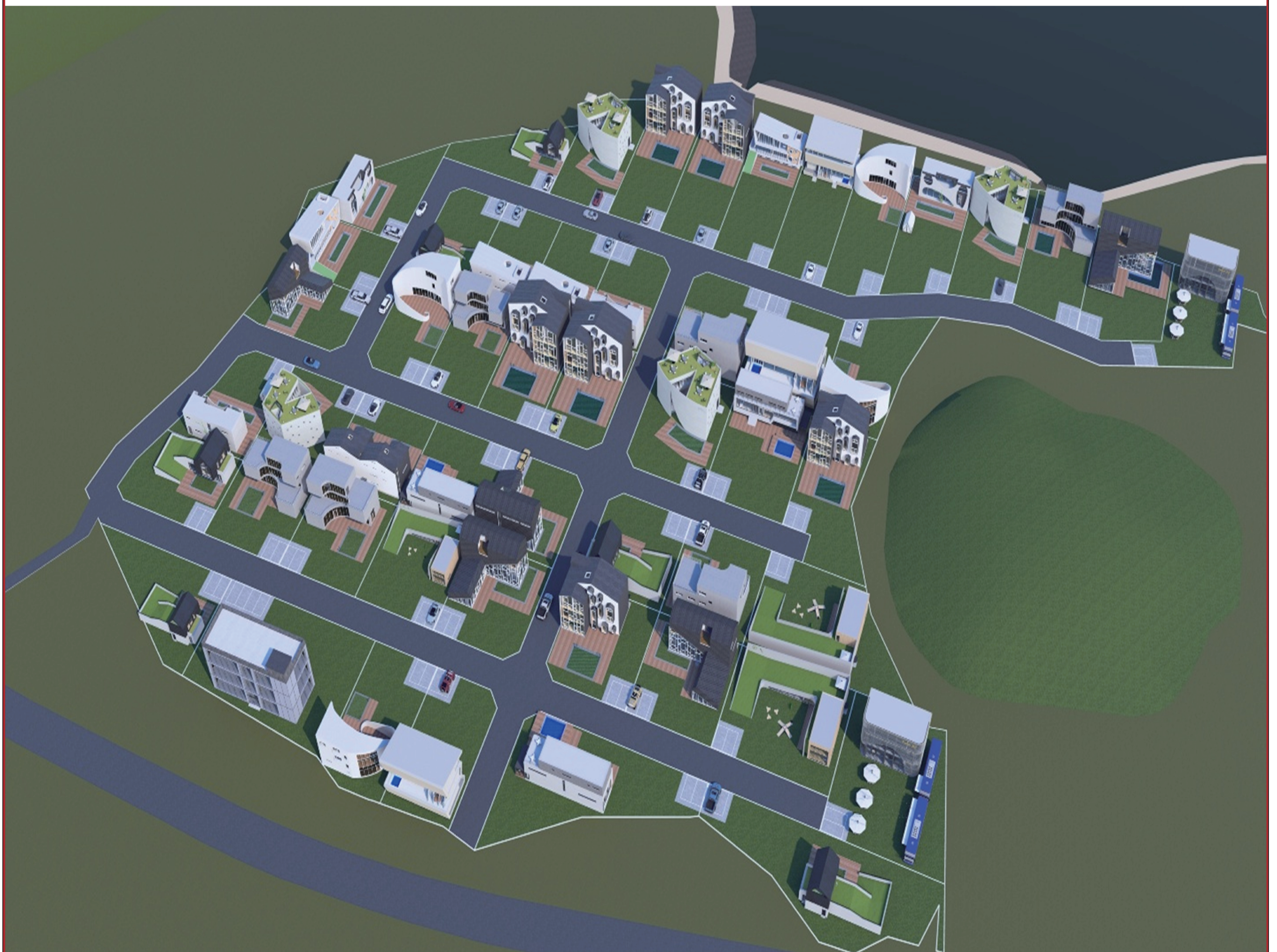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항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